

불자 세상보기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

영화제는 크게 주제영화제와 일반영화제 둘로 나뉜다. 주제영화제는 특정 주제 영화를 상영하고, 일반영화제는 모든 주제의 영화를 다 상영한다.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등은 일반영화제다. 반면, 무주산골영화제, 제천음악영화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청소년영화제, 순천만동물영화제, 건축영화제, 인권영화제, 노동영화제, 정동진산악영화제 등은 주제영화제다. 주제영화제 가운데 종교영화제도 있다. 기독교 사랑영화제, 가톨릭 영화제다.

불교영화제는 아직 없다. 유교영화제도 없고 도교영화제도 없다. 우리 전통 사상이 유불도는 전멸하다. 서구 근대화 100년 만에 한국전통 사상이 사멸되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유교나 도교는 그렇다 치고 불교 영화제 하나쯤은 있어

도 되지 않을까.

5월 27일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이하 여성영화제)가 개막했다. 여성영화제의 구호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이다. 남성중심의 권력이 지배함으로써 양성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차별 받는 약자의 입장인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보자는 취지이다. 영화제 덕에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들이 여성영화를 인식하는 태도나 수준은 높아졌다.

이 세상의 반은 여성이라는 자부심 하에 여성영화제는 조직되었다. 불교의 자부심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하지 미달은 아닌 듯 싶다.

고통의 바다인 사바세계에서 어둠속을 헤매는 중생의 마음에 깨달음의 불꽃을 심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반이라는 논리나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식 보다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겠나. 아마 세상의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종자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진리가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를 갖는 불교가 영화제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비단 영화제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조계종단에서 운영하는 방승국이나 병원이 없다는 지적은 불교가 사회적 실천, 대중적 교화에 있어서 타종교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꼭 조계종단 이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꼭 직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 후원은 필요하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이 보다 큰 미덕이기 때문이다.

불교계 스님들의 설법은 대중 사회에서 큰 영향을 갖고 있다. 영화제라는 것이 별 다른 게 아니다. 스님들의 훌륭한 설법처럼 좋은 영화들을 소개하여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현대는 말이나 문자보다 영상이 더 유리한 시대이다. 영화제가 없다는 것은 좋은 매체를 포기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포교한다는 의미와 같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중생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공덕은 적은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영화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의 눈으로 영화를 보면 영화의 모든 주제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

르지 않다. 권선징악의 신화적 영웅담이든, 사랑의 고통을 담은 로맨스 멜로영화가든, 어떤 영화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의 자세는 이 세상의 진리가 곧 부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육바라밀에 있지 않을까. 또한 12연기법과 중도와 불이사상과 유식사상과 공사상과 사성제와 팔정도에 있을 것이다. 불교철학의 심오함을 대중들에게 일상속에서 자각하게 하는 방식 그게 바로 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랴.

불교영화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저 불교도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과정에 다름 아니다. 만일 불교라는 말이 거창하다면 그냥 영불영화제도 좋고 참선영화제, 법공양영화제, 108배영화제라도 하면 될 일이다. 그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하던 평소대로 거창하지 않고 번거롭지 않게 신심을 갖고 영화를 보여주면 된다는 말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에는 왜 영화제가 없을까?

社說

종교편향 총리 후보 절대 안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불교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그의 종교편향 이력 때문이다. 황 총리 후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행해왔던 행태는 '종교편향의 백화점'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실제 황 총리 내정자는 자신의 저서 <교화와 법 이야기>에서 목회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으며, "세상 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등 공직에 있는 법조인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편향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외에도 그의 편향 이력은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편향적 사고를 가진 총리 후보의 지명에 어느 때보다 기열차게 반대하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현 정권이 기독교 편향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신행단체들은 총리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황 총리 후보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범종교계·시민사회단체 연대 기구도 발족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6

월 2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황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는 감리교 신학자였던故변선환 목사의 타계 20주년이다. 변 목사는 한국 개신교가 통과해야 할 이상으로 교회중심주의를 꼽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배타적 교회중심주의는 세상과 교회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게 변 목사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그에게 독으로 돌아갔다. 그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감리교단에서 축출됐다.

종교인으로서 황 총리 후보와故변 목사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한 명은 공직자이면서도 배타적 복음주의를 고수해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으로 그 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종교의 도리라면 누가 올바른 행동을 했던 것일까. 또한 세상을 분란케 하는 자를 재상의 자리에 올리는 것도 올바른 국정 운영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사찰경영 개론서가 출간된 까닭

사찰도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린 경영이 필요한 시대다. 변화하는 신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포교는 물론이고 사찰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찰에 경영이라는 신조어가 낯설지 않다. 그만큼 경영이 이제는 일반 사회의 전유물만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사찰경영 최고위 과정'을 2010년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조계종 연수에도 이와 동일한 과정이 과목으로 개설돼 스님들의 관심이 높다. 동국대 최고위 과정은 현재까지 90명의 스님과 20명의 재가자가 이수했다. 조계종 연수 사찰경영 과목은 매회 접수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사찰 경영'에 대한 출제자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찰 경영을 다른 전문 교재나 개론서가 없던 것은 분명 문제였다. 이번엔 동국대 정각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사찰경영론>을 최근 발간한 것은 그런 문제를 불식시켰다. <사찰경영론>을 펼쳐보면 사찰 운영과 행정을 경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밖에도 기부 활성화, 국고 보조금 활용 관리, 불교 리더십, 미디어 활용 등 사찰 경영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세부 분야들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사찰 경영'을 주제로 개론서가 발간된 것은 한국불교계에서는 처음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신도 감소와 재정 악화는 한국불교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해야 한다는 긴급한 신호다. 따라서 선불교에 사찰경영을 접목해 생산적 불교를 실현해야 한다. 사찰과 경영의 만남, 그 도약지는 전국 사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는 데 있을 것이다.

발언대

황교안 총리 후보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 진원지 중 하나는 불교계이다. 황 총리 후보자가 공직 시절 보여준 종교편향 이력이 그 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법이 사회법의 위에 있다는 저서의 내용은 공직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이라고 보기에 문제가 많은 대목이다. 불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지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그 간 창국,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도 요구합니다.

황 장관은 목회자와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등 종교편향적인 신념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인물이 국정운영의 최고위층에 취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적 갈등을 우리는 이미 지난 2008년에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원리주의 친기독교적 성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수많은 종교차별과 탄압을 경험한 불자들은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어 정부의 종교편향적 자세를 비판하는 등 당시 우리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모두는 우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진력할 국민통합형 국무총리를 원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철회와 국민의 지지자 아닌 정권의 안위에만 천착해 부적절한 인물을 총리에 지명 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을 재고할 것도 요구합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5월 22일 성명>

시대착오적 복음 가진 인물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화합의 법음이 은누리에 퍼져나가야 할 부처님오신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민 화합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의 중심에 섰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총리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황교안 내정자는 20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재직시절 "재소자들을 기독교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라는 공직자로서 정교 분리에 어긋난 충격적인 글을 기고한 바 있다.

또한 종교의 강요가 재소자들의 죄에 대한 처벌 외에 인격의 사살이라는 이중처벌을 초래한다는 많은 서구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있음에도 황교안 내정자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복음주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놀랄기까지 하다.

"교회에는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 "부목사 전도사 사택에도 세금이 부과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대한 헌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목사들의 월급에도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종교 편향적이고, 투명사회의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발언을 일삼아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화합에 역행하고, 국론분열의 중심이 된 황교안 총리내정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불교청년회 5월 22일 성명서>

국민 통합 아닌 분열 초래할 것

대통령은 지난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대통령의 오랜 고민의 결과치고는 참담하다.

교도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소속의 정책기획단장이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와 (사)아가페가 서로 민영교도소 설립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종교적 신념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도 안 되고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에도 과세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세사법 보다는 하나님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등의 종교편향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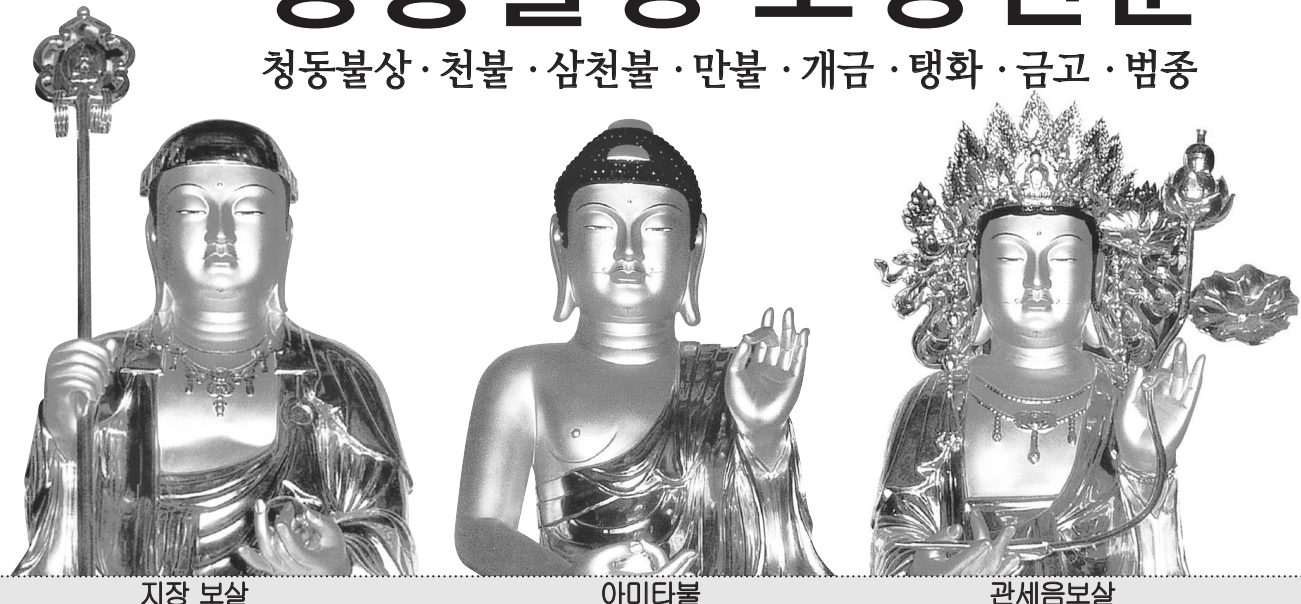
이러한 일방적 신념의 황교안 내정자는 인권수호의 보루인 법무장관으로 있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 등 인권향상을 위한 발자취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단지 공안통으로서의 경력이 충실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종교편향에 의한 대립과 분열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다른 말에는 귀를 막는 편향된 국무총리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5월 22일 논평문>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주문은 헌불삼!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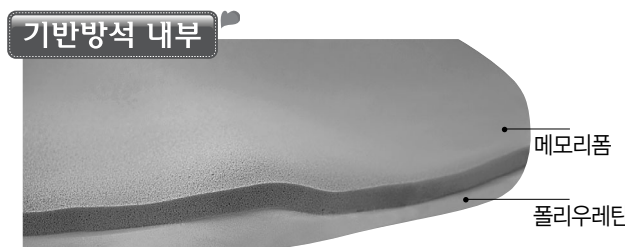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뒤편) 8c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www.hyunbulshop.com